

# 후국일

주간지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오 르 비  
후 국 일  
김 민 수

# 후국일

일관된 기준. 그리고 체화.

학력

고려대학교

약력

現) 오르비 클래스 인강 국어강사

現) 후국일 수능국어 class 운영

現) 파라투스 학원 국어강사



☎ 선생님 연락처 : 010 4023 7163

TALK 카톡ID: hhhm7163

## [인강 안내]

<http://class.orbi.kr/group/153/>

## [현강 안내]

### 1. 강남 - 후국일 클래스 (예약 신청 중)

3월 개강 예정 ~ 10월 말 중강 예정

- **수요일** 오후 6시~10시 (고3 + N수)

### 2. 김포 - 후국일 클래스 (추가 모집 중)

3.1 개강 ~ 10월 말 중강 예정

- **금요일** 오후 6시~10시 (고3 + N수)

- **토요일** 오전 9시~01시 (고2 + 고1)

### 3. 인천 - 파라투스 학원 (추가 모집 중)

1.1일 개강 ~ 10월 말 중강 예정

- **일요일** 오전 A반 11~3시 (고3 + N수)

- **일요일** 오후 B반 3~7시 (고3 + N수)

[2019학년도 후국일 수능국어 표 커리큘럼]

메인 커리큘럼	STEP 1 (기본)		STEP 2 (심화)		STEP 3 (파이널)	
	12~5월		6월~8월		9~10월	
	비문학	문학	비문학	문학	비문학	문학
	후국일몽 독해의 기준	후국일몽 감상의 기준	후국일몽 독해의 완성	후국일몽 감상의 완성	후국일몽 파이널	후국일몽 파이널
서브 커리큘럼			STEP2.5 (약점 보완)			
			6월~10월			
			문법		화작	
			후국일몽 문법의 완성		후국일몽 화작의 완성	

# [2019학년도 후국일 수능국어 세부 커리큘럼]

[STEP 1 : 12~5월]

**기본 개념 강좌 목표 : 국어 기출 분석의 기본 방향성 정립 + 일관된 기준 만들기.**

## -비문학 강좌

강좌 명 : 후국일몽 - 독해의 기본

강좌 내용 : 평가원 기출 주요 지문

강좌 목표 : 비문학 기출 분석의 방향성 정립 + 일관된 독해 기준 만들기

## 과제 및 자료

- ① 비문학 복습 자료 (전 지문 구조 분석서 제공)
- ② 후국일 주간지

## -문학 강좌

강좌 명 : 후국일몽 - 감상의 기준

강좌 내용 : 평가원 기출 주요 작품

강좌 목표 : 문학 기출 분석의 방향성 정립 + 일관된 감상 기준 만들기 + 문학 개념어

## 과제 및 자료

- ① 수강 전 선행 문학 개념어 과제 (2018~2006학년도 주요 문학 개념어 학습)
- ② 문학 복습 자료 (전 지문 작품 해설 제공)
- ③ 후국일 주간지

## [STEP 2 : 6~8월]

**심화 강좌 목표** : STEP 1에서 정립한 기준의 체화.

### -비문학 강좌

강좌 명 : 후국일몽 - 독해의 완성

강좌 내용 : 평가원 기출 고난도 선별 지문

강좌 목표 : STEP1 에서 만든 독해 기준의 체화.

### 과제 및 자료

- ① 비문학 복습 자료(전 지문 구조 분석서 제공)
- ② 후국일 주간지

### -문학 강좌

강좌 명 : 후국일몽 - 감상의 완성

강좌 내용 : 평가원 기출 고난도 선별 작품

강좌 목표 : STEP1 에서 만든 감상 기준의 체화.

### 과제 및 자료

- ① 문학 복습 자료
- ② 문학 개념어 자료 (당해 6월, 9월 모의평가 추가 반영)
- ③ 후국일 주간지

## [STEP 3 : 9~10월]

**파이널 강좌 목표 : STEP2의 체화된 기준을 통한 최고난도 문항 실전 대비**

### -비문학 강좌

강좌 명 : 후국일몽 - 비문학 파이널

강좌 내용 : 평가원, 교육청, LEET 기출 최고난도 선별 지문

강좌 목표 : 최고난도 선별 문항을 통한 실전 대비

### 과제 및 자료

- ① 비문학 복습 자료 (전 지문 구조 분석서 제공)
- ② 후국일 주간지
- ③ 랜덤모의고사 제공

### -문학 강좌

강좌 명 : 후국일몽 - 문학 파이널

강좌 내용 : 평가원, 교육청 최고난도 선별 작품 + EBS 선별 작품

강좌 목표 : 최고난도 + 연계 선별 문항을 통한 실전 대비

### 과제 및 자료

- ① 문학 복습 자료
- ② 후국일 주간지
- ③ 랜덤모의고사 제공

## [STEP 2.5 : 6~8월]

**특별 강좌 목표 : 화작과 문법에서의 약점 보완**

### - 화작 강좌

강좌 명 : 후국일몽 - 화작의 완성

강좌 내용 : 평가원 기출 화작 문제 선별

강좌 목표 : 필수 개념 정리 + 효율적 풀이를 위한 행동 교정

### 과제 및 자료

① 복습 자료

② 후국일 주간지

### - 문법 강좌

강좌 명 : 후국일몽 - 문법의 완성

강좌 내용 : 평가원 기출 문법 문항 선별 + EBS 연계 교재

강좌 목표 : 필수 개념 확인 + 실전 문제 풀이

### 과제 및 자료

① 복습 자료

② 후국일 주간지



# 수강생만을 위한 특별 제공 자체 제작 자료

## 화제의 파이널 랜덤 모의고사

(“지문 분석 + 해설 전문항” 후국일 자체 제작 자료 이용)

## 완벽한 과제 후국일 주+월간지

(수많은 양질의 문제+완벽한 지문 분석+섬세하고 구체적인 해설)



후국일 721461

2017-11-17 22:01:51 조회수 10090 144

### [후국일X글장이] 다 드루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857645>

글장이x후국일 랜덤모의고사 1회 v.1.pdf	(5.4M) [3976]
글장이x후국일 랜덤모의고사 1회 해설 D.pdf	(5.5M) [2155]
OMR.pdf	(230.0K) [477]
출처 및 빠른정답.pdf	(35.2K) [1660]

하이음 +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사하는  
오르비 클래스 국어영역 강사  
후국일 X 글장이입니다.

수능 연기 공지가 올라온 날부터  
공동밤샘작업을 통해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글장이 X 후국일 콜라보레이션 '1탄' (총 4회)

랜덤모의고사 1회

# 후국일 주간지

입문 : 2017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

오르비  
후국일  
김민수

저는 젊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젊기만한 강사는 아닙니다.

심지어 젊기까지한 강사입니다.

앞으로 누구보다 치열한 1년을 보낼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여러분보다 더 치열한 1년을 보낼 강사가 될 겁니다.

화려한 마케팅으로 도배된  
사교육 시장에서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공감되는 강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실속있는 강의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관된 기준. 그리고 체화.

앞으로 1년 잘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젊기까지한  
국어강사 후국일 김민수 올림.

근대 이전의 조각은 고유한 미술 영역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신전이나 사원, 왕궁과 같은 장소의 일부분으로 존재했다. 중세 유럽의 성당 곳곳에 성서와 관련된 각종 인물이 새겨지거나 조각상으로 놓였던 것, 왕궁 안에 왕이나 귀족의 인물상들이 놓였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조각은 그것이 놓여 있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왕의 권력을 상징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각이 장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그 장소의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종교의 영향력 및 왕권이 약화되면서 관련 장소가 지녔던 권위도 ㉠ 퇴색하여, 그 장소에 놓인 조각에 부여되었던 종교적, 정치적 의미도 약해진 것이다. 또 특정 장소의 상징으로서의 조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기존의 맥락을 ㉡ 상실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이 전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근대적 장소가 ㉢ 출현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각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놓이면서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사람들은 조각을 예술적인 기법이나 양식 등 순수한 미적 현상이 구현된 독립적인 작품으로 감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이후 미술의 흐름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작품 외적 맥락에 ㉣ 구속되기보다는 작품 자체에서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작품 바깥의 대상을 지시하거나 재현하기보다는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들이 이 시기부터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미술 전시장의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즉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 안에서 받침대 위에 놓여 실제적인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조각이 특정 장소로부터 독립해 가는 경향 속에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예술 사조로, 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꾸밈과 표현도 최소화하여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사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니멀리즘 조각은 감상자들이 걸어 다니는 바닥이나 전시실 벽면과 같은 곳에 받침대 없이 놓임으로써 감상자와 작품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동선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니멀리즘 조각은 단순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추상 조각과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전시장이라는 실제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에 의도적으로 결부하여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게 되었다. 이런 특징은 근대 이전의 조각이 장소의 특성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

이후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미니멀리즘 작품이 장소와의 관련성을 모색하고 구현한 것이기는 해도 미술관이라는 공간 내부에 제한된다는 점을 ㉤ 간과한 일부 예술가들은,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자연을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아 장소와의 관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려 하였다. 대지 미술은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대지의 표면에 형상을 디자인하고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하였다.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작품의 미의 근원으로 삼는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작품과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드러났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 ② 통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특정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대립적인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논의의 대상이 변모해 온 양상을 시간적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지 미술가들은 자연을 창작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았다.
- ② 화이트 큐브는 현실로부터 작품이 분리된 느낌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 ③ 왕권이 약해짐에 따라 왕의 모습을 담은 인물상에 부여되는 상징적 의미가 변화되었다.
- ④ 19세기 이후의 추상 조각은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 외적 맥락보다 작품 자체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 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여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하기도 하였다.

18. [가]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중세 시대에 건축, 조각, 회화는 독자적인 예술 분야가 아닌 기술이나 수공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정치, 사회적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미술의 개념이 확립되고 미가 인간 행위를 지배하는 하나의 독립적 원리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은 종교적 신비감이 시들해진 상태에서 순수한 미적 체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의 건립은 이러한 변화와 맞물린 근대적 현상이었다.

- ① 박물관에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온 조각상은 건축, 조각, 회화 영역의 통합에 기여하겠군.
- ② 근대에 출현한 박물관은 작품이 가진 수공업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겠군.
- ③ 조각상을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에 정치, 사회적 기능을 부여한다는 뜻이겠군.
- ④ 종교적인 인물상이 사원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미의 개념이 예술 분야에서 기술 분야로 확대되었겠군.
- ⑤ 중세의 종교 건축물의 일부였던 조각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원래의 종교적 신비감이 유지되기 어렵겠군.

19. <보기>는 미술 작품을 감상한 사례이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품	감상 내용
 <p>㉠: &lt;L자 빔&gt;</p>	<p>A는 미술관 안에서 동일한 크기의 'L'자 모양 조형물들을 곳곳에 배치한 ㉠을 보았다. 조형물들 사이를 걸으며 감상해 보니, 보는 위치에 따라 조형물들의 형태와 구도가 다르게 보였다. 서로 다른 동선으로 ㉠을 감상한 B와 그 느낌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다.</p>
 <p>㉡: &lt;나선형 방파제&gt;</p>	<p>㉡은 그레이트 솔트 호수에 설치된 작품으로, 돌과 흙으로 만든 나선형의 방파제이다. C는 실제로 방파제 위를 걸어 보았는데, 가장 자리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육지 쪽으로 나와서 바라보니 방파제 위에 하얀 소금 결정들이 덮여 있는 부분도 보여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p>

- ① ㉠은 미술관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 구별된다.
- ② ㉠을 감상하는 동선에 따른 A와 B의 상이한 경험은 작품에 대한 각자의 의미 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다.
- ③ ㉡은 호수라는 자연에 돌과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자연 환경을 작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그 위나 주변을 걸으면서 감상하게 되므로, 작품의 의미는 작품, 감상자 및 장소 간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과 ㉡은 감상자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장소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0.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희미해져
- ② ㉡: 잃어버리는
- ③ ㉢: 드러나는
- ④ ㉣: 엇매이기보다는
- ⑤ ㉤: 알아차린

근대 이전의 조각은 고유한 미술 영역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존재했다. 중세 유럽의 성당 곳곳에 성서와 관련 있는 각종 인물이 새겨지거나 조각상으로 놓였던 것, 왕궁 안에 왕이나 귀족의 인물상들이 놓였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조각은 그것이 놓여 있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왕의 권력을 상징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각이 장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그 장소의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종교의 영향력 및 왕권이 약화되면서 관련 장소가 지녔던 권위도 @ 퇴색하여, 그 장소에 놓인 조각에 부여되었던 종교적, 정치적 의미도 약해진 것이다. 또 특정 장소의 상징으로서의 조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기존의 맥락을 ㉠ 상실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이 전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근대적 장소가 ㉡ 출현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각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놓이면서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사람들은 조각을 예술적인 기법이나 양식 등 순수한 미적 현상이 구현된 독립적인 작품으로 감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이후 미술의 흐름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작품 외적 맥락에 ㉢ 구속되기보다는 작품 자체에서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작품 바깥의 대상을 지시하거나 재현하기보다는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들이 이 시기부터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미술 전시장의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즉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 안에서 받침대 위에 놓여 실제적인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조각이 특정 장소로부터 독립해 가는 경향 속에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예술 사조로, 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꾸밈과 표현도 최소화하여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사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니멀리즘 조각은 감상자들이 걸어 다니는 바닥이나 전시실 벽면과 같은 곳에 받침대 없이 놓임으로써 감상자와 작품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동선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니멀리즘 조각은 단순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추상 조각과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전시장이라는 실제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에 의도적으로 결부하여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게 되었다. 이런 특징은 근대 이전의 조각이 장소의 특성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

이후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미니멀리즘 작품이 장소와의 관련성을 모색하고 구현한 것이기는 해도 미술관이라는 공간 내부에 제한된다는 점을 ㉣ 간파한 일부 예술가들은,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자연을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아 장소와의 관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려 하였다. 대지 미술은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대지의 표면에 형상을 디자인하고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 넣으로써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하였다.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작품의 미의 근원으로 삼는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작품과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드러났다.

1문단  
 ① 1문단을 읽고 상당히 얼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근대 이전 조각 ->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 = 독립적 X]이죠. 아마도 이 글은 [조각]과 관련한 글일 가능성이 크고, 근대 이전이라는 발문을 통해서 [통시]적이 글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각]이라는 소재 어떻게 변해갔는가와 관련된 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한 아마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조각이 [독립적인 작품]으로 존재했다는 내용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겠죠. 굳이 [고유한 미술 영역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라는 발문을 주진 않았을테니까요. 이런 통시적인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시대에 네모치고, 밑줄 긋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시대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심이 어떻게 변화해갔는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② 1문단은 결국 [근대 이전의 조각 = 독립적 작품이 아니라,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가 핵심이었고 그러한 조각의 예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문단이었죠.

1문단 정리  
 -> 근대 이전의 조각 = 독립적 작품 X,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

2문단  
 ① 1문단에서 언급한 조각의 경향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음을 제시하고, 그러한 [변화의 이유 ->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문단이었죠. 결국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야 되는 것은 "근대 이전과 비교해서 조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이며, 역시나 1문단에서 예측한 대로 [근대 이전 : 독립적 X] -> [근대 : 독립적]과 같이 변화했다는 게 가장 핵심이었죠.

2문단 정리  
 -> 근대의 조각 : 독립적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

3문단  
 ① 3문단은 19세기 이후 미술 흐름 속에서 2문단에서 설명한 조각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단이었죠.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독립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3문단 정리  
 -> 근대의 조각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19세기 이후 미술에서의 조각

4문단  
 ① 4문단에서는 1~3문단에서 제시한 것처럼 조각이 [독립 X -> 독립 O]되어 가는 경향 속에서 등장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단이었어요. 그냥 [미니멀리즘이구나]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미니멀리즘과 앞서 제시된 독립적 성격으로서의 조각과의 관계를 파악해주면서 읽어야 하겠죠. 또한 핵심은 미니멀리즘이 [장소와의 관련성]을 지니면서도 근대 이전의 조각이 장소의 특성에 종속되었던 것과는 다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미니멀리즘 조각과 이전 시기의 추상 조각의 공통점>  
 -> 단순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함

<미니멀리즘 조각과 이전 시기의 추상 조각의 차이점>

[미니멀리즘 조각] : 감상자들이 걸어 다니는 바닥이나 전시실 벽면에 받침대 없이 놓임 -> 전시장이라는 실제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에 의도적으로 결부하여 활용 O

[이전 시기의 추상 조각] : 미술 전시장의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즉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에 받침대 위에 놓임 -> 실제적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줌.

4문단 정리  
 -> 조각이 특정 장소로 독립해 가는 경향 속에서 등장한 미니멀리즘. 그러한 미니멀리즘과 기존의 추상 조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5문단  
 ① 4문단에서 작품이 독립해 가는 경향에서 등장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설명했고, 5문단에서는 그 후 미술에서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을 제시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그러한 시도 중 대표적인 [대지 미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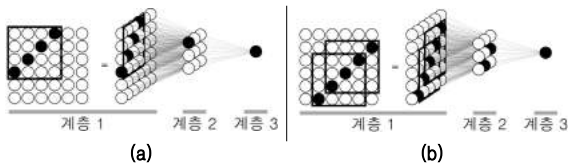
② 대지 미술과 같은 시도에서 나타나 듯,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은 근대 이전의 [조각 -> 장소에 종속]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작품과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됨에서 차이가 있네요.

5문단 정리  
 -> 미니멀리즘 등장 이후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짐 -> 대지 미술

전체 구조 잡기  
 1문단 - 근대 이전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했던 조각 / 2문단 - 근대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써 존재하게 된 조각  
 3문단 - 근대의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 19세기 이후의 조각 / 4문단 - 조각이 독립해 가는 경향에서 등장한 미니멀리즘  
 5문단 - 미니멀리즘의 등장 이후 미술에서의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짐 - 대지 미술

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서 수용되어 전기 신호로 변환된 뒤,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 후벨과 위젤은 망막에 비취진 빛에 대해 고양이의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시각 피질 세포가 망막의 일정 영역 내 광수용기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나의 시각 피질 세포와 연결된 망막상의 일정 영역을 해당 시각 피질 세포의 '수용장'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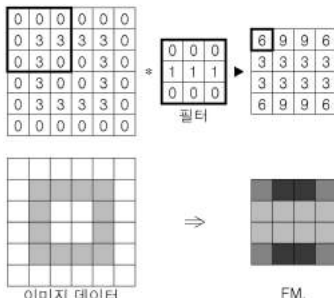
또한 이 실험을 통해 시각 피질이 하위의 '단순 세포'와 상위의 '복잡 세포'의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단순 세포와 복잡 세포 모두 각각의 수용장에 비친 특정한 각도를 가진 선분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 하지만 단순 세포가 수용장 내 특정 위치의 빛에만 활성화되는데 반해, 복잡 세포는 수용장이 단순 세포보다 넓고, 수용장에 비취진 빛의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활성화된다. 이는 복잡 세포가 다수의 단순 세포들로부터 전기 신호를 전달받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림 1>

<그림 1>은 이러한 시각 피질 세포들의 전기 신호 전달 과정을 다층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각 층은 유닛들로 구성되는데, 계층 1의 각 유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 계층 2의 각 유닛은 단순 세포에, 계층 3의 유닛은 복잡 세포에 대응된다. 이때, 검은색 유닛은 해당 유닛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계층 1의 사각형 영역은 계층 2의 활성화된 유닛의 수용장을 표시한 것이다. (a)와 (b)는 각각의 사선 패턴의 위치에 따른 각 유닛들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계층 2의 각 유닛은 자신의 수용장 안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각도의 사선 패턴이 입력되면 활성화된다. 계층 3의 유닛은 계층 2의 유닛 중에 하나라도 활성화되면 활성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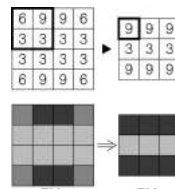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신경망으로서, <그림 1>과 같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 모형을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층'과 '통합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에 의해 출력된다. 먼저, 합성곱 연산은 특정한 크기의 **필터**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



<그림 2>

까지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 가며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의 곱을 합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필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의 형태를 가진 6×6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수평 방향의 패턴을 추출한다고 하자. 이때, 각 유닛의 숫자는 명암을 0부터 1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필터의 크기가 3×3이고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필터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합성곱을 16번 연산하고 4×4 크기의 '특징 지도'(feature map, FM)가 출력된다. <그림 2>에서 특징 지도 FM<sub>1</sub>의 가장 왼쪽 위 유닛 값 '6'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위 3×3의 영역과 필터와의 곱의 총합인 '0×0+0×0+0×0+0×1+3×1+3×1+0×0+3×0+0×0'의 연산을 통해 구해진 것이다.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 이미지 데이터에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특징 지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합성곱 연산 결과 수평 방향의 패턴이 강조되고 데이터 크기는 6×6에서 4×4로 줄어 출력된 특징 지도를 보여 준다. 이때, 필터의 이동 간격이 크게 설정된다면 출력되는 특징 지도의 크기를 줄여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지의 특징을 놓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3>

다음으로,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닛 값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연산이다. 통합 연산 규칙에는 최댓값 통합 규칙, 평균값 통합 규칙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새롭게 출력된 특징 지도로 통합층이 구성된다. <그림 2>의 FM<sub>1</sub>을 2×2 범위로 최댓값 통합 규칙에 따라 통합 연산한 것이다. 이때, 통합 연산의 범위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1 유닛 단위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면 3×3 크기의 새로운 특징 지도 FM<sub>2</sub>가 출력된다.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추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이를 반복하면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연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패턴의 위치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합성곱 연산을 통해 출력된 특징 지도 내에서 서로 인접한 유닛들은 미세한 위치 정보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패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통합 연산 수행은 합성곱 연산의 결과에서 위치 정보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 위치 정보는 축약되고 패턴 정보는 강조된 특징 지도가 출력된다. 그리고 이 특징 지도를 인공 지능 네트워크인 '전체 연결층'에 입력하여 이미지 인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입력된 이미지가 많아질수록 인공 신경망의 기계 학습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이 스스로 필터의 수치를 갱신함으로써 이미지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합성곱 연산 및 통합 연산의 횟수, 필터의 크기 및 이동 간격, 통합 연산 규칙 등은 초기 설정 값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설계해야 한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곱 신경망은 사진 자동 분류, 필기 인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 인식: 이미지 속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24. 빛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내의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시각 피질의 복잡 세포는 단순 세포로부터 전달받은 전기 신호를 전체 연결층에 전달한다.
- ③ 시각 피질의 단순 세포는 수용장 내에 비취진 특정 각도의 선분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
- ④ 합성곱 신경망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려면 특징 지도에 특정 패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 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패턴 정보가 강조된 특징 지도를 추출한다.

25. <보기>는 ㉠을 재구성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와 윗글의 <그림 1>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양한 빛 자극에 대해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위해, 선분 모양의 빛을 고양이의 망막에 비춘다. 이때, 빛의 각도는 각도 ㉠과 ㉡로, 빛이 비추어지는 수용장 내 위치는 위치 ㉢와 ㉣로 각각 다르게 한다. 그 결과 세포 A와 B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단, 세포 A와 B는 서로 다른 시각 피질 세포이며, 망막의 특정 영역을 수용장으로 공유한다.)

실험			실험 결과	
	빛의 각도	빛의 위치	세포 A	세포 B
자극 1	㉠	㉢	○	○
자극 2	㉠	㉣	○	×
자극 3	㉡	㉢	×	×
자극 4	㉡	㉣	×	×

(○ : 활성화, × : 비활성화)

- ① '자극 1'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세포 A'와 '세포 B'가 반응하는 빛의 각도는 같겠군.
- ② '자극 1'과 '자극 2'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세포 A'의 수용장이 '세포 B'의 수용장보다 더 넓겠군.
- ③ '자극 1'과 '자극 3'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세포 A'는 각도 ㉡의 빛에는 반응하지 않겠군.
- ④ '세포 A'는 <그림 1>의 '계층 3'의 유닛에, '세포 B'는 '계층 2'의 유닛에 해당되겠군.
- ⑤ '자극 1'과 '자극 2'의 실험 결과는 <그림 1>의 (a)에, '자극 3'과 '자극 4'의 실험 결과는 (b)에 해당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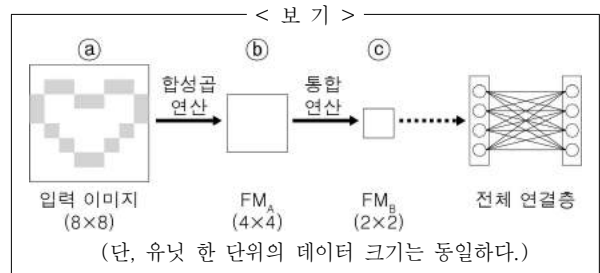
26. [필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이 반영된 특징 지도가 출력된다.
- ② 필터의 기능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것이다.
- ③ 적절한 필터를 통해 합성곱 연산을 반복하여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 ④ 필터의 크기와 이동 간격의 비율은 합성곱 신경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 ⑤ 필터의 매개를 통해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에 대한 정보가 합성곱층에 반영된다.

27. [가]를 고려할 때, '통합 연산'을 수행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통합 연산 수행 이전과 이후, 이미지 속 사물에 대한 인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② 통합층의 각 유닛에 담긴 정보는 합성곱층의 각 유닛에 담긴 정보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 ③ 이미지 속 사물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합성곱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④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 이미지 인식에는 불필요한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⑤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에 포함된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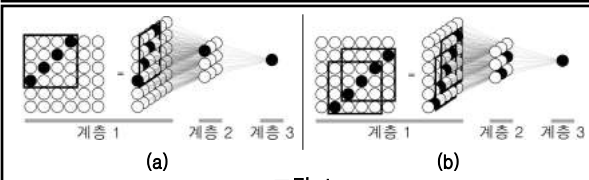
28. <보기>는 '♡' 모양의 디지털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데이터 크기는 ㉠에 비해 작겠군.
- ② 필터의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를 출력하기 위해 5×5 필터가 사용되었겠군.
- ③ 2×2 범위로 평균값 통합을 통해 ㉡를 출력했다면, ㉡의 데이터 크기는 ㉠의 25%로 감소하였겠군.
- ④ 2×2 범위로 최댓값 통합 규칙을 사용하여 ㉡를 통합 연산한 경우, 해당 범위의 유닛 값들 중 최댓값이 ㉡의 하나의 유닛 값으로 도출되었겠군.
- ⑤ ㉡에서 ㉢를 출력하기 위한 통합 연산에는 '♡' 모양의 특징을 검출할 수 있는 필터가 적용되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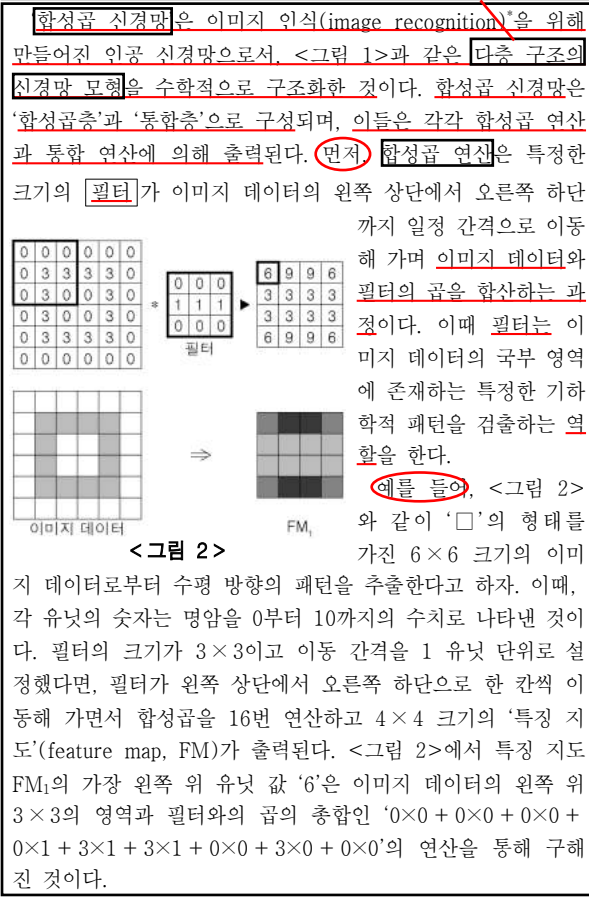
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서 수용되어 전기 신호로 변환된 뒤,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① 후백과 위젯은 망막에 비춰진 빛에 대해 고약이의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시각 피질 세포가 망막의 일정 영역 내 광수용기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나의 시각 피질 세포와 연결된 망막상의 일정 영역을 해당 시각 피질 세포의 **수용장**이라고 한다.

① 이 실험을 통해 시각 피질이 하위의 '단순 세포'와 상위의 '복잡 세포'의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단순 세포와 복잡 세포 모두 각각의 수용장에 비친 특정한 각도를 가진 선분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 하지만 단순 세포가 수용장 내 특정 위치의 빛에만 활성화되는데 반해 복잡 세포는 수용장이 단순 세포보다 넓고, 수용장에 비춰진 빛의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활성화된다. 이는 복잡 세포가 다수의 단순 세포들로부터 전기 신호를 전달받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이러한 시각 피질 세포들의 전기 신호 전달 과정을 다층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각 층은 유닛들로 구성되는데, 계층 1의 각 유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 계층 2의 각 유닛은 단순 세포에, 계층 3의 유닛은 복잡 세포에 대응된다. 이때, 검은색 유닛은 해당 유닛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계층 1의 사각형 영역은 계층 2의 활성화된 유닛의 수용장을 표시한 것이다. (a)와 (b)는 각각의 사선 패턴의 위치에 따른 각 유닛들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계층 2의 각 유닛은 자신의 수용장 안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각도의 사선 패턴이 입력되면 활성화된다. 계층 3의 유닛은 계층 2의 유닛 중에 하나라도 활성화되면 활성화된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신경망으로서, <그림 1>과 같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 모형을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층'과 '통합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에 의해 출력된다. 먼저, 합성곱 연산은 특정한 크기의 **필터**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 가며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의 곱을 합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필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의 형태를 가진 6×6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수평 방향의 패턴을 추출한다고 하자. 이때, 각 유닛의 숫자는 명암을 0부터 1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필터의 크기가 3×3이고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필터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합성곱을 16번 연산하고 4×4 크기의 '특징 지도'(feature map, FM)가 출력된다. <그림 2>에서 특징 지도 FM<sub>1</sub>의 가장 왼쪽 위 유닛 값 '6'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위 3×3의 영역과 필터와의 곱의 총합인 '0×0+0×0+0×0+0×1+3×1+3×1+0×0+3×0+0×0'의 연산을 통해 구해진 것이다.



<1문단>  
 ① 늘 말하지만 1문단을 잘 읽어야 합니다. 1문단이 떠버리면 다음 문단부터는 다 떠 버릴 수 밖에 없어요. 첫 문장 역시 중요합니다. 첫 문장에서 설명해준 개념들을 바탕으로 제재로 구체화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서도 그랬죠. 결국 정리하면 1문단은 ㉠의 실험을 통해서 [수용장]을 밝혀냈다는 거죠. 다만 그 과정을 이해해주는 게 중요했어요.  
 ② 첫 문장을 잘 읽어야 합니다.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었다면 문장 성분을 끊어서 차근 차근 파악해야 해요. 첫 문장을 잘 파악하면 아래와 같죠.

[빛 ->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서 수용 -> 전기 신호로 변환 됨 ->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

- 1) 빛이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로 들어옴
- 2) 광수용기 세포에서 (빛 -> 전기 신호로 변환)
- 3) 그러한 변환된 전기 신호가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 됨

③ 첫 문장에 이걸 왜 주었을까요? 첫 문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했던 것은 ㉠에 해당하는 문장이었죠. 즉 첫 문장에서 빛이 망막을 통해 수용되어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시각 피질에 전달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빛이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실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험을 통해 [시각 피질 세포] - ("망막의 일정 영역 내" 광수용기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냈으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망막의 일정 영역]을 [수용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늘 말하지만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앞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 문장을 붙여가며 천천히 의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가야 해요. 개념이 단순히 많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시되는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죠. 왜 그럴까요? 읽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읽고 뭔가 붕 뜬다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멈추고 다시 앞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해 이게 무슨 말이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주셔야 합니다.

㉠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  
 ㉠ : [시각 피질 세포와 연결된 망막상의 일정 영역 = 수용장]

1문단 정리  
 -> ㉠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 -> 수용장

<2문단>  
 ① 2문단은 1문단에서 제시한 실험을 통해 밝혀진 또 다른 점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1문단에서 ㉠의 실험을 통해 [수용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면 2문단에서는 ㉡의 실험을 통해 (빛 -> 전기신호)로 변환된 것이 전달되는 시각 피질의 세포들이 [단순 세포] + [복잡 세포]의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다층 구조를 이루는 [단순&복잡]세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해주고 있었구요.

㉡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  
 ㉡ : [시각 피질 세포와 연결된 망막상의 일정 영역 = 수용장]  
 ㉢ : [시각 피질 세포 = 단순 세포 + 복잡 세포]

② 여러분들은 읽어가면서 의식적으로 공통점은 묶어주고 차이점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주셔야 하죠. 그래야 <보기>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늘 말하지만 [구분 -> 비교]로 진행되는 정보들은 항상 선지에서 [상위 개념에서의 공통점]과 [하위 개념에서의 차이점]을 건드려니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체크를 해주어야 문 제에서 물을 때 빠르게 돌아와서 확인해줄 수 있겠죠.

[공통점]  
 -> 두 세포 모두 [빛의 각도]의 영향을 받음

[차이점]  
 1) 빛의 위치 : [단순 세포 영향 받음O] <-> [복잡 세포 영향 받지X]  
 2) 수용장의 넓이 : [단순 세포] < [복잡 세포]

2문단 정리  
 -> ㉡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 -> [시각 피질 세포 = 단순 + 복잡 세포]의 각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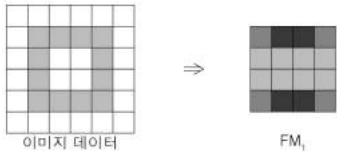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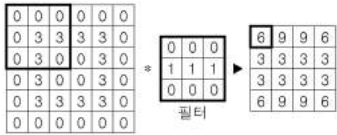
<3문단>  
 ① 3문단은 1~2문단에서 설명한 [수용장]과 [시각 피질 세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시각 피질 세포들의 전기 신호 전달 과정을 다층 모형으로 나타]내는 문단이었죠. <그림>이 제시되었으므로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그림을 확인하고 납득하면서 갔어야 해요. 그냥 쪽 읽고 대충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읽으면서 정보가 제시될 때 마다 확인해 주면서 읽는 거죠.

② 역시나 제시되는 개념들이 많았지만 개념들간의 관계를 파악해주면서 읽었으면 되었어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고 넘어가고 필요하면 찾으러 오는 거죠. 풀지 마세요. 결국 정리하면 [계층 1 -> 계층 2 -> 계층3]의 방향으로 빛이 변환된 전기 신호가 전달된다는 것이고, 즉 [광수용기 세포 -> 단순 세포 -> 복잡 세포]과 같이 전달된다는 것을 파악해주셨으면 됩니다.

3문단 정리  
 -> 다층 모형으로 나타낸 시각 피질 세포들의 전기 신호 전달 과정  
 = [광수용기 세포(=계층1)] -> [단순 세포(=계층2)] -> [복잡 세포(=계층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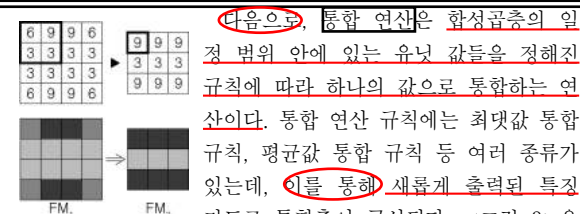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신경망으로서, <그림 1>과 같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 모형을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층'과 '통합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에 의해 출력된다. 먼저, 합성곱 연산은 특정한 크기의 필터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



<그림 2>

까지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 가며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의 곱을 합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필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의 형태를 가진 6×6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수평 방향의 패턴을 추출한다고 하자. 이때, 각 유닛의 숫자는 명암을 0부터 1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필터의 크기가 3×3이고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필터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합성곱을 16번 연산하고 4×4 크기의 '특징 지도'(feature map, FM)가 출력된다. <그림 2>에서 특징 지도 FM<sub>1</sub>의 가장 왼쪽 위 유닛 값 '6'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위 3×3의 영역과 필터와의 곱의 총합인 '0×0+0×0+0×0+0×1+3×1+3×1+0×0+3×0+0×0'의 연산을 통해 구해진 것이다.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 이미지 데이터에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특징 지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합성곱 연산 결과 수평 방향의 패턴이 강조되고 데이터 크기는 6×6에서 4×4로 줄어 출력된 특징 지도를 보여 준다. 이때, 필터의 이동 간격이 크게 설정된다면 출력되는 특징 지도의 크기를 줄여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지의 특징을 놓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3>

<그림 2>의 FM<sub>1</sub>을 2×2 범위로 최댓값 통합 규칙에 따라 통합 연산한 것이다. 이때, 통합 연산의 범위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1 유닛 단위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면 3×3 크기의 새로운 특징 지도 FM<sub>2</sub>가 출력된다.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추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이를 반복하면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연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패턴의 위치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합성곱 연산을 통해 출력된 특징 지도 내에서 서로 인접한 유닛들은 미세한 위치 정보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패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통합 연산 수행은 합성곱 연산의 결과에서 위치 정보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4문단~5문단>

① 4문단부터는 흐름이 바뀌죠. 1~3문단에 걸쳐서 ㉠의 실험을 통해 빛이 생물체의 시각 피질에 맺히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4문단부터는 그러한 신경망 모형을 [수학적으로 구조화 한 ->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흐름이죠.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었고, 이러한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먼저 1~3문단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깔아준 거죠. [퍼셉트론] 지문이 떠올랐다면 기술 분석을 열심히 하신겁니다.)

② 합성곱 신경망을 정의하고 그러한 합성곱 신경망을 이루는 구조를 설명하죠. [합성곱층]과 [통합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은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서 출력된다고 하네요. 즉 제시된 정보를 정리해두면

[합성곱 신경망] = [합성곱 연산 -> 합성곱층] + [통합 연산 -> 통합층]

③ 그리고 먼저 합성곱층을 출력되게 하는 [합성곱 연산]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그러한 합성곱 연산의 과정 중 [필터]의 역할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합성곱 연산 =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의 곱을 합산하는 과정]  
[필터 =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함]

④ 5문단은 4문단에서 이렇게 일반화해서 제시한 [합성곱 연산]을 <그림 2>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문단이었구요. 늘 말하지만 일반화된 정의로 파악이 안 된다면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따라오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럴 경우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니까요. 5문단을 이해하는 것에 핵심은 제시된 예시를 그림에 맞추어 생각할 수 있는 지였어요. 문장을 빠르게 굵어 읽지 말고 한 문장을 읽고 멈추고 그림에 대입해보고, 다시 읽고 대입해보고 이런식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1) [이미지 데이터의 사각형이 표시된 9칸] X [필터의 9칸] -> 모두 9개의 값 모두 합산 -> FM1의 첫 칸
- 2) 이러한 과정이 가로로 4번, 세로로 4번 이루어지므로 나오는 값은 총 16개이며 따라서 특징 지도 FM1은 [4X4]의 형태를 갖는 것.
- 3)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해낸 것

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괜히 기다란 연산 수식을 준 게 아니죠. 여러분이 제시된 그림을 통해 직접 그 연산을 해봄으로써 합성곱 연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를 한 번 수식할 때 마다 가장 오른쪽 사각형의 1칸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수식이 가로로 총 4번, 세로로 총 4번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 나오게 되는 특징지도는 16칸짜리 특징 지도가 되는 거죠.

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미시적인 독해는 정말 잘 해내신 겁니다. 다만 우리 조금만 멀리서 글을 생각해볼까요? 이러한 합성곱 연산을 통해 형성되는 것은 합성곱층인데 이것은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러한 합성곱 신경망은 무엇이었죠? 그래요. 신경망 다층 구조를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거였죠. 느낌 오시나요? 그래요 1~3문단에서 설명한 그 과정이 다시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 합성곱 연산은 [계층1 -> 계층2]로의 연산이 되는 거죠. 참 잘 쓰여진 글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올까요? 그래요. 통합 연산에 대한 내용이 올 것이고 이는 2문단에서의 [계층2 -> 계층3]으로의 과정을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부분에 해당하겠죠.

4~5문단 정리

->합성곱 신경망을 이루는 합성곱층과 통합층. 그 중 합성곱층을 출력하는 합성곱 연산의 과정 + 구체적인 예시

<6문단>

① 4~5문단에서 제시한 합성곱 연산을 통하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특징 지도]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또한 그러한 합성곱 연산의 과정에서 필터의 이동 간격의 설정에 따른 장,단점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네요.

6문단 정리

->합성곱 연산을 통해 필터의 특성이 강조된 특징 지도를 얻을 수 있음 + 필터의 이동 간격의 변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

<7문단>

① 7문단부터는 통합 연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었죠. 앞에서 합성곱 연산을 잘 이해했다면 여기서 무난하게 이해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여기 역시 다 떠버렸겠죠. 역시나 일반화된 통합 연산의 설명을 주고, 예시를 통해서 구체화해주는 문단이었어오. 다만 예시가 상대적으로 간략해서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통합 연산]

->앞서 구한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닛 값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연산  
->결국 <그림3> FM1의 합성곱층 4칸에 해당하는 값들(=6,9,3,3)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오른쪽 FM2의 하나의 값(=9)으로 통합하는 연산이라는 말인 거죠.

② <그림3>에서는 [최댓값 통합 규칙]에 따라 4개의 수를 1개의 수로 통합했죠. 왜 그럴까요? [최댓값 통합 규칙]이니까요. 그래요. (6,9,3,3)중에서 가장 최댓값인 9가 최댓값 규칙에 따라서 오른쪽 특징 지도에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통합 연산 과정은 2문단의 [계층2 -> 계층3]의 과정을 구조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7문단 정리

->[합성곱층 -> 통합층]으로 출력하는 통합 연산의 과정 + 구체적인 예시

<p>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추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이를 반복하면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b>하지만</b> 연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패턴의 위치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합성곱 연산을 통해 출력된 특징 지도 내에서 서로 인접한 유닛들은 미세한 위치 정보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패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b>통합 연산</b> 수행은 합성곱 연산의 결과에서 위치 정보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p>	<p>8문단</p> <p>① 4문단부터 흐름이 바뀌고 5~7문단에 걸쳐서 [합성곱 연산 -&gt; 통합 연산]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8문단은 그러한 각각의 연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었죠. 여러분들은 각각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주시면서 읽었어야 겠죠. 정리하면 합성곱 연산은 이미지에서 패턴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통합 연산은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정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p> <p>[합성곱 연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 지를 추출</li> <li>2)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필터를 통해 반복해주면 이미지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음</li> <li>3)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패턴의 위치 정보를 계속 유지 -&gt; 불필요한 정보</li> </ol> <p>[통합 연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합성곱 연산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정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함.</li> </ol>
<p>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 위치 정보는 축약되고 패턴 정보는 강조된 특징 지도가 출력된다. 그리고 이 특징 지도를 인공 지능 네트워크인 전체 연결층에 입력하여 이미지 인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입력된 이미지가 많아질수록 인공 신경망의 기계 학습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이 스스로 필터의 수치를 갱신함으로써 이미지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합성곱 연산 및 통합 연산의 횟수, 필터의 크기 및 이동 간격, 통합 연산 규칙 등은 초기 설정 값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설계해야 한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곱 신경망은 사진 자동 분류, 필기 인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p> <p>* 인식: 이미지 속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p>	<p>8문단 정리</p> <p>-&gt;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의 각각의 역할</p> <p>9문단</p> <p>① 결국 4~8문단의 제시된 과정을 정리하면 [이미지데이터 -&gt; 합성곱 연산 -&gt; 특징 지도 1 -&gt; 통합 연산 -&gt; 특징 지도2 -&gt; 전체 연결층 -&gt; 이미지 인식 결과 출력 가능]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이 글에서 파악했어야 하는 핵심 과정이었죠. 그 합성곱 신경망과 관련된 특징들을 서술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었어요.</p> <p>9문단 정리</p> <p>-&gt;[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출력된 특징지도 -&gt; 전체 연결층에 입력되어 이미지 인식 결과 출력]</p>

<p>전체 구조 잡기</p> <p>1문단 - ㉠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 -&gt; 수용장의 존재</p> <p>2문단 - ㉠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 -&gt; 시각 피질의 다층 구조</p> <p>3문단 - 시각 피질 세포의 전기 신호 전달 과정을 다층 모형으로 설명</p> <p>4문단 - 3문단과 같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 모형을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합성곱 신경망 -&gt; 합성곱 연산 과정</p> <p>5문단 - 합성곱 연산 과정의 구체적인 예시</p> <p>6문단 - 합성곱 연산의 결과 -&gt; 필터의 특성이 강조된 특징 지도 출력</p> <p>7문단 - 통합 연산 과정과 구체적인 예시</p> <p>8문단 -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의 각각의 역할</p> <p>9문단 -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출력된 특징 지도 -&gt; 전체 연결층에 입력되어 출력</p>
--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얻는 대가를 말한다.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고전경제학파의 리카도로부터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차액지대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어떤 나라의 A, B, C 지역에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그 비옥도에 차이가 있어 각 지역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5만 원, 6만 원, 8만 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생산비는 투입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쌀의 가격은 생산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나라의 쌀 수요량이 적어서 A 지역 토지의 일부만 경작해도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A 지역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인 5만 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A 지역 토지들로 모자라 B 지역 토지도 경작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B 지역 토지를, 경작되는 토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한계지라 부른다. B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6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 있어 쌀 한 가마당 1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 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A 지역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고 지주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지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대는 결국 기존의 A 지역 토지 경작자들의 추가 소득인 1만 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쌀 수요량이 더 늘어나서 C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르고, B 지역 토지에도 지대가 형성된다. 결국 쌀의 가격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가 되고,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의 차액이 되는 것이므로, 더 열악한 땅이 한계지가 될수록 쌀 가격은 오르고 그에 따라 지대도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 리카도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즉 잉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지대론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불로소득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에 입각해 헨리 조지는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어야 한다는 지대 조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전경제학파에 이어 등장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는 지대를 잉여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 클라크는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지대를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의했다. 이 이론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인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생산 요소의 가격은 그것의 한계생산가치, 즉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의 임대 가격인 지대도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로써 지대를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로 보고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별개로 취급하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했다.

리카도와 클라크의 논의는 신고전경제학파의 ㉣ 마셜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마셜은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한계생산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우선 마셜은 생산 요소를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생산 요소와 그렇지 않은 고정 생산 요소로 나누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각각 가변 비용, 고정 비용이라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이나 자본은 가변 생산 요소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필지를 특정 시기에 목돈을 지불하여 빌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입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빌려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셜은 생산자의 행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 한 단위를 더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의 추가분 즉, 한계 비용이 생산물 한 단위의 가격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비용이므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 비용에 한해서만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에 관여하는 한계 비용으로 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셜은 지대를 생산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보는 초기 신고전경제학의 관점과, 임금이나 이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자신의 이론 안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마셜은 지대를 순전히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토지의 비옥도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는 한편 그는 토지 이외의 요소에도 지대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를테면 마셜은 공장, 기계 등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가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준(準)지대'라고 하였다. 이런 요소도 토지처럼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셜은 이전까지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현대 지대론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3.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대의 성격을 달리 보는 두 이론이 후속 이론으로 수용되는 논의의 흐름을 설명하고, 후속 이론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지대의 결정 원리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지대가 결정되는 사례에 그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 ③ 지대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밝히고 지대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 ④ 지대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고, 지대론의 변천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 ⑤ 지대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밑줄 친 [A]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갑국은 곡물 수입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완전히 끊김으로써 곡물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그동안 쓰지 않던 척박한 땅까지 경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곡물 가격과 기존 경작지의 지대가 크게 올랐다. 이후 주변국과의 분쟁이 해결되자 곡물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곡물 수입을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갑국의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높으므로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경쟁력이 없는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카도는 자신의 '차액지대론'에 입각하여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곡물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A] 그 손해는 지주들에게만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맞섰다.

- ① 그동안의 지대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② 그동안의 곡물 공급 부족은 지대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③ 그동안의 곡물 생산비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④ 그동안의 곡물 가격 상승은 곡물 생산비 하락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⑤ 그동안의 곡물 생산비 상승은 지대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35. ㉠의 결과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1만 원이 된다.
- ②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2만 원이 된다.
- ③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3만 원이 된다.
- ④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2만 원,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1만 원이 된다.
- ⑤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3만 원,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2만 원이 된다.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론에 영향을 끼쳤다.
- ② ㉠과 ㉡는 모두 지대를 토지 생산물과 관련짓고 있다.
- ③ ㉡는 ㉢과 달리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
- ④ ㉢은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지대를 해석하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지대를 자연적 요소에 의한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37. <보기>를 윗글의 마셜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빵을 생산하던 기업 ㉠은 빵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밀가루 투입량과 노동자 수를 즉시 늘려 빵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러다 빵 가격이 더 오르게 되자 ㉠은 거액을 투자하여 추가로 공장 부지를 빌렸고 이를 통해 빵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나)  
임대 비행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는 승객이 늘어나 비행 운임이 오르자, 비행기를 추가로 빌려 운항하는 비행기 수를 늘렸다.

- ① (가)에서 빵 가격이 오르자 ㉠이 노동자와 밀가루를 즉시 추가 투입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밀가루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이 빵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부지를 추가로 빌렸다는 점에서 지대는 장기적으로는 가변 비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이 추가로 빌린 공장 부지는 단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가 지불하는 비행기 임대료는 비행기의 공급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준지대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가 추가 투입한 비행기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겠군.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얻는 대가를 말한다.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고전경제학파의 리카도로부터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차액지대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어떤 나라의 A, B, C 지역에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그 비옥도에 차이가 있어 각 지역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5만 원, 6만 원, 8만 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생산비는 투입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쌀의 가격은 생산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나라의 쌀 수요량이 적어서 A 지역 토지의 일부만 경작해도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A 지역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인 5만 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A 지역 토지들로 모자라 B 지역 토지도 경작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B 지역 토지를, 경작되는 토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한계지라 부른다. B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6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 있어 쌀 한 가마당 1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 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A 지역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고 지주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지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대는 결국 기존의 A 지역 토지 경작자들의 추가 소득인 1만 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쌀 수요량이 더 늘어나서 C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①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르고, B 지역 토지에도 지대가 형성된다. 결국 쌀의 가격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가 되고,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의 차액이 되는 것이므로, 더 열악한 땅이 한계지가 될수록 쌀 가격은 오르고 그에 따라 지대도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① 리카도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즉 잉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불로소득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에 입각해 헨리 조지는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어야 한다는 지대 조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전경제학파에 이어 등장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는 지대를 잉여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⑥ 클라크는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지대를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의했다. 이 이론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인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생산 요소의 가격은 그것의 한계생산가치, 즉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의 임대 가격인 지대도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로써 지대를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로 보고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별개로 취급하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했다.

1문단  
① 지대를 먼저 [정의]해주고 있어요. 늘 말하지만(거의 다음 내용 외울듯) 정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의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1문단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지대가 소재일텐데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라는 것을 파악해주셨으면 됩니다.

② 먼저 그러한 논의 중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죠. 아마도 다음 문단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이러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을 바탕으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죠. 또한 아마도 이러한 [리카도로부터 ~ 시작했다]라는 발문을 통해서 그럼 리카도 이후의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가 제시될 수 있는 [통시적 구조]의 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더욱 좋았겠네요.)

1문단 정리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 ->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2문단  
① 역시나 2문단은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을 바탕으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었죠.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제시하며 이해를 돕고 있었어요. 예시의 내용을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해서 제시해주죠. 결국

1) 쌀의 가격 =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  
2)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의 지대 =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 -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  
3) 열악한 땅이 한계지가 될수록 쌀 가격은 오르고 -> 그에 따라 지대로 오름  
라는 거네요. 쫄지 마세요.)

2문단 정리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3문단  
① 2문단에서 차액지대론을 바탕으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리카도가 [지대 = 잉여 = 불로소득]으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즉 1~3문단의 내용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문단이었고 결국 이러한 흐름을 묶어주는 이 글의 핵심 제재는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라는 거죠. 놓치지 말기. 또한 이러한 주장이 담고 있는 핵심은 [지대 ->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 -> 지대]라는 거죠.

② 이러한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에 입각해 헨리 조지가 주장한 지대 조세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흐름상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크겠네요.

3문단 정리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 [생산물의 가격 -> 지대] -> [지대 = 잉여 = 불로소득]

4문단  
① 1~3문단이 고전경제학파에 지대에 대한 관점이었다면 4문단부터는 그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이었고, 그러한 학파의 대표로 클라크가 주장한 [지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있죠. 클라크는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해서 지대를 새롭게 정의했다고 하네요. 그 아래 제시되는 부분들은 그러한 새로운 정의를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부분이지요.

② 여러분은 단순히 클라크의 주장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리카도의 주장과 클라크의 주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읽어주셨어야겠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겠네요.

<리카도>  
->[지대 = 잉여 = 불로 소득]

<클라크>  
->[지대 =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량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 것 = 정당한 대가]

4문단 정리  
->클라크의 지대에 대한 새로운 정의 -> [지대 = 정당한 대가]

리카도와 클라크의 논의는 신고전경제학파의 ③ 마셜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마셜은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한계생산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우선 마셜은 생산 요소를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생산 요소와 그렇지 않은 고정 생산 요소로 나누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각각 가변 비용, 고정 비용이라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이나 자본은 가변 생산 요소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필지를 특정 시기에 목돈을 지불하여 빌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입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빌려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셜은 생산자의 행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 한 단위를 더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의 추가분 즉, 한계 비용이 생산물 한 단위의 가격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비용이므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 비용에 한해서만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에 관여하는 한계 비용으로 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셜은 지대를 생산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보는 초기 신고전경제학의 관점과, 임금이나 이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자신의 이론 안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마셜은 지대를 순전히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토지의 비옥도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는 한편 그는 토지 이외의 요소에도 지대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를테면 마셜은 공장, 기계 등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가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준(準)지대'라고 하였다. 이런 요소도 토지처럼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셜은 이전까지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현대 지대론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문단

- ① 1~3문단에서 지대에 관한 리카도의 논의, 4문단에서 클라크의 논의를 제시했다면 5문단부터는 신고전경제학파의 마셜의 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흐름이었네요. [리카도 <-> 클라크]였다면 마셜은 각각의 주장을 발전시키고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죠.
- ② 마셜이 주장한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데 먼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마셜이 주장한 [생산 요소]와 [한계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리고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마셜이 주장한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 1) 토지는 단기적으로 고정 생산 요소 /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  
2) 한계 비용이 생산물의 한 단위의 가격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해야 함 ->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에 한해서만 논의될 수 있음  
-> 지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에 관여하는 한계 비용으로 볼 수 없지만(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 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한계 비용으로 볼 수도 있음.
- ③ 결국 ②와 같은 마셜의 주장은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관점과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자신의 이론 안으로 수용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죠. 결국 두 번째 문장에서 진술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문단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었네요.

5문단 정리

->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관점과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자신의 이론 안으로 수용한 마셜의 지대에 관한 논의

6문단

- ① 5문단에서 앞선 두 학파의 관점을 모두 수용한 마셜의 지대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제시한 후 6문단에서는 마셜의 지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러한 마셜의 주장의 [의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 1) [차액지대론에 대한 마셜의 비판]  
-> 지대는 순전히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것으로 한정
- 2) [토지 이외에 요소에도 지대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엮]  
-> 준지대의 개념을 제시
- 3) [마셜의 주장의 의의]  
-> 이전까지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현대 지대론으로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함.

6문단 정리

-> 지대에 개념과 성격에 관한 추가적인 마셜의 논의 + 의의

\*이 글을 읽고 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크게 3가지 흐름이 남아야겠죠. [리카도 <-> 클라크] -> [마셜] 이렇게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라는 거요.)

노옹이 졸다가 말하기를,  
 “네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하여 생이 종일토록 노옹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노옹이 깨어나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사방으로 찾아 다녔으나 보지 못하고 후토부 인께 물으니 마고할미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 가 산다하기로 거기 가보니 과연 숙향이 누상에서 수를 놓고 있거늘 보고 온 일을 표하기 위해 불땀이를 내리쳐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태우고 왔노라. 너는 그 할미를 찾아보고 숙향의 종적을 묻되 그 수의 불탄 데를 이르라.”/하였다. 이량이 말하기를,  
 “제가 처음에 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갔다**가 **이리** 왔는데 낙양 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니 노옹이 웃으며 말하기를,  
 “마고선녀는 범인(凡人)이 아니라 그대 정성을 시험함이니 다시 가 애걸하면 숙향을 보려니와 만일 그대 부모가 숙향을 만난 것을 알면 숙향이 큰 화를 당하리라.”  
 하고 이미 간 데 없었다. 그리하여 이량은 집으로 돌아왔다. 선시(先時)에 할미 이량을 속여 보내고 안으로 들어와 낭자더러 말하기를,  
 “아까 그 소년을 보셨습니까? 이는 천상 태을이요, 인간 이 선입니다.”/하니 낭자가 물었다.  
 “태을인 줄 어찌 아셨습니까?”  
 할미가 말하기를,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대성사 부처를 따라 요지(瑤池)에 가 반도(蟠桃)’를 받고 조적의 수(繡) 족자를 샀노라.’ 하니 태을임이 분명합니다.”  
 하니 낭자가 말하였다.  
 “세상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 옥지환(玉指環)\*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할미가 말하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하였다.  
 하루는 낭자가 누상에서 수를 놓더니 **문득 난데없는 불뿔**이 떨어져 수 놓은 봉의 날개 끝이 타는지라 낭자가 놀라 할미에게 보이니 할미가 말하기를,  
 “이는 화덕진군의 조화니 자연 알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이량이 목욕계하고 황금(黃金) 일정(一正)을 가지고 할미 집을 찾아가니 할미가 맞이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취한 술이 엇그제야 깨어 해정(解醒)하려고 하던 차에 오늘 공자를 만나니 다행한 일입니다.”  
 하니 이량이 말했다.  
 “할미 집의 술을 많이 먹고 술값을 갚지 못하였기로 금전 일정을 가져와 정을 표하노라.”  
 할미가 말하기를,  
 “주시는 것은 받거니와 제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술독 위에 주성(酒星)이 비치고 밑에는 주천(酒泉)이 있습니다. 가득찬 술동이의 입자는 따로 있는 법이라, 어찌 값을 의논하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마시고 무슨 일로 수천 리를 왕래하셨습니까?”  
 하니 이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할미의 말을 곧이듣고 숙향을 찾으러 갔노라.”  
 할미가 말하기를,  
 “낭군은 참으로 신의 있는 선비입니다. 그런 병인(病人)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니 숙향이 알면 자못 감사할 것입니다.”  
 하니 이량이 말하였다.  
 “헛수고를 누가 알겠는가?”  
 할미가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숙향이 이미 죽었습니까?”  
 이량이 말하기를,  
 “노전에 가 노옹의 말을 들으니 낙양 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할미집이 아니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람을 속임이 너무 짓곳도다.”

하니 할미 정색하여 말하기를,  
 “낭군의 말씀이 매우 허단합니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거늘 숙향을 데려 갔다는 말이 더욱 황당합니다.”  
 하였다. 이량이 말하기를,  
 “화덕진군이 말하기를, ‘숙향이 수놓는데 불뿔을 나리쳐 봉의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정간(徵看)하라.’ 하였으니 그 노옹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물으니 할미가 말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낭군의 정성이 지극합니다.”  
 이량이 말하기를,  
 “방장(方丈), 봉래(蓬萊)를 다 돌아서도 못 찾으면 이선이 또한 죽으리로다.”  
 하고 술도 아니 먹고 일어나거늘 할미 웃으며 말하기를,  
 “숙녀(淑女)를 취하여 동락(同樂)할 것이지 구태여 그런 병든 걸인을 괴로이 찾으십니까?”  
 하니 이량이 말하기를,  
 “어진 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이미 전생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지 않겠느냐?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할미가 또 말하기를,  
 “제가 아무쪼록 찾아 기별할 것이니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니 이량이 말하기를,  
 “나의 목숨이 할미에게 달렸으니 가련하게 여김을 바라노라.”  
 하고 할미를 이별하고 집에 돌아와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삼일 후에 할미가 나귀를 타고 오거늘 기쁘게 맞이하여 서당(書堂)에 앉히고 물었다.  
 “할미는 어찌 오늘에야 찾아 왔는가?”/ 할미가 말했다.  
 “낭군을 위하여 숙향자를 찾으러 다니니 숙향이란 이름이 세 곳에 있으되 하나는 태후 여감의 딸이요, 하나는 사랑 황전의 딸이요, 하나는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였습니다. 세 곳에 기별한 즉 들은 응답하나 걸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 배필은 진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이량이 대희하여 말하기를,  
 “필시 요지에 갔을 적에 반도를 주던 선녀로다. 수고스럽지만 이 진주를 갔다가 보이라.”  
 하고 술과 안주를 내어 관대하니 할미 오락하고 돌아가 낭자더러 이생의 말을 이르고 진주를 내어 주거늘 낭자가 보고 ‘맞습니다.’ 하니 할미는 웃고, 즉시 이량에게 가 말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 이전의 어느 날.  
 \* 반도: 삼천 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린다는 선경에 있는 복숭아.  
 \* 옥지환: 옥으로 만든 가락지.

2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 ② 등장인물의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윗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구조가 확인된다.

할미와 이랑의 1차 만남	..... ㉠
↓	
할미와 이랑의 2차 만남	..... ㉡
↓	
할미와 이랑의 3차 만남	..... ㉢
↓	
할미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줌	

- ① ㉠에서 할미는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이랑에게 숨겨 이랑과 숙향의 만남을 지연시킨다.
- ② ㉠과 ㉡ 사이에 이랑은 화덕진군으로부터 마고선녀인 할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 ③ ㉡에서 할미는 숙향을 두고 '병든 걸인'이라 칭하여 숙향에 대한 이랑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 ④ ㉢에서 할미는 이랑에게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밝히고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 ⑤ ㉠에서 ㉢로 진행되면서 숙향과의 만남에 대한 이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숙향전'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두 주인공은 의지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 가고, 결국은 징표에 근거하여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다.

- ① 이랑이 숙향을 찾아 '표진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다는 것은, 이랑과 숙향의 결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숙향이 '문득 난데없는 불똥'을 보고 놀란 것은, 이랑과 자신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군.
- ③ 이랑이 '이미 전생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서, 이들의 인연이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이랑이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겠다고 말한 것은, 숙향과의 인연을 이어나가려는 의지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숙향이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겠다고 말한 것은, 징표를 통해 이랑이 자신의 인연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32.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랑과 숙향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랑은 ㉠ 하겠군."

- ① 감개무량(感慨無量)
- ② 면종복배(面從腹背)
- ③ 의기소침(意氣銷沈)
- ④ 전전공공(戰戰兢兢)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가)

이웃에 있는 장생이란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여 산에 들어가 재목을 찾았으나, 뽕뽕이 심어진 나무들은 대부분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용도에 맞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산꼭대기에 한 그루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곧바로 좌우에서 보아도 역시 곧기만 했다. 때문에 쓸 만한 좋은 재목으로 생각하고는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 뒤에서 살펴보니, 구부러져 있는 나무였다. 이에 장생은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했다.

“아, 나무 가운데 재목이 될 만한 것은 보면 쉽게 살필 수 있고, 고르면 쉽게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살폈어도 쓸모없는 재목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니 하물며 사람들이 외모를 그럴 듯하게 꾸미고 속마음을 깊게 숨기는 경우에 있어서라!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그 외모를 보면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하며 세세한 행동을 살펴보아도 삼가고 삼가니, 군자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큰 변고를 당하거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경우에 딱치고 나면 본심을 드러내고야 마니,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나무가 자랄 때, 소나 염소에 의해 짓밟히거나 도끼나 자귀에 의해 찍히는 것도 없이 비나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가니, 쪽쪽 뿔어 곧게 자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쓸모없는 재목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다지도 심하니, 하물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라! 물욕이 참된 성품을 어지럽히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가 이 일을 나에게 말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난데그려! 비록 그러하나 역시 할 말이 있네. 《서경》의 <홍범> 편에 오행을 논하면서 ‘나무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거나 바르다’고 하였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으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속성으로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네. 하지만 공자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니, 정직하지 않고도 살아간다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그렇다면 사람이 고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도 역시 요행이라 할 수밖에 없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지만, 사람 가운데 곧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잘 다스려지는 치세일지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네. 자네도 큰 집을 한번 보게나. 그 집의 들보나 기둥이나 서까래나 각목을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한 경우에도 굽은 재목을 보지 못할 것이네. 이번에 또한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과 사대부로서 인끈을 차고 고관지위에 올라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치고 바른 도를 지닌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네. 이처럼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항상 불행하지만, 사람 가운데 비뚤어진 자는 늘 행복하기만 하다네. 옛말에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에 봉해진다.’고 하였으니, 이 말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굽은 나무보다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네.”

- 장유, 「곡목설」 -

(나)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우리 집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처음의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려 할 때  
어진 마음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A]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는 텃밭이 여드레갈이로다  
자손에게 물려줘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  
[B]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못한지에만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 들어 흘깃흘깃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좋아지게 되었는데  
엿그제 날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제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자꾸나

- 허견, 「고공가」 -

\* : 머슴

\*가멸게: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게.

\*호수: 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

(다)

[C] 비가 새어 썩은 집을 그 누가 고쳐 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쌓을까  
불한당 도적들 멀리 안 다니거늘  
화살 찬 경비병들 그 누가 힘써 할까  
[D] 크게 기운 집에 마노라\* 혼자 앉아  
분부를 뉘 들으며 논의를 뉘와 할까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말아 계시니  
[E]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헤아리니 마노라 탓이로다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건마는  
그렇지만 세상 보기에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F] 집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G]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집안 절로 일어나리라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

\*마노라: 상전, 마님, 임금 등 남녀를 두루 높이어 이르는 말.

42.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을 통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조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③ 가상의 사례를 들어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용 전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43. (가)의 '장생'과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무)로 인해 떠올린 생각	인간사와 연관 짓기	
장생	여러 번 보고도 그 구부러져 있음을 파악하지 못함.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실체를 짐작하지 못함.	... ①
	본래 곧은 나무도 곧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사람도 있음.	... ②
나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됨.	인간의 천성에는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이 모두 포함됨.	... ③
	곧은 나무는 큰 집을 이루는 재목으로 사용됨.	활처럼 곧은 사람은 세상에서 쓰이기 어려움.	... ④
	굽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려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오름.	... 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화는 작가에 의해 기획되고 통제된다. 화자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 청자를 상정하지만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발화로 구성된 대화가 작품 내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발화의 주고받음이 텍스트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텍스트 간의 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작가는 이와 같이 발화 내용 및 발화들 간의 관계를 주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를 구체화한다.

- ① (가)에서 '장생'의 '탄식'은 '나'에게 전달되면서 대화의 실마리가 된다.
- ② (가)에서 '나'는 '장생'의 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더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청자로 호명된 '고공'의 반응이 제시되지 않아 화자의 발화가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의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나)의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공감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 ⑤ (다)는 이 작품이 (나)에 대한 화답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와 (다) 사이에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집'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C]: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설의적 표현을 통해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E]: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16번 : ⑤

->통시적인 글이었어요. 늘 말하지만 이러한 통시적인 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년도나, 시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시대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핵심 제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면서 읽어주시는 거죠. 이 글 역시 [근대 이전 -> 근대 -> 19세기 이후]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통시적인 글이었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핵심 제재인 [조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근대 이전 : 장소의 일부 <-> 근대 : 독립적인 예술 작품 -> 19세기 이후 :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과 같은 흐름을 파악하고 비교해가면서 읽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글의 구조를 잡고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어주면 16번 같은 거시적인 관점, 즉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는 빠르게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문단 별로 읽으면서 찾고 있을 거구요. 나머지 선지는 적절하지 않죠.)

### 17번 : ②

->이런 통시적인 글의 경우 흐름이 바뀔 때마다 그 이전에 제시되었던 정보들을 처리해주시고 지문으로 돌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단기 기억력이 좋거나 한 번에 읽고도 모든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한 번에 읽고 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게 힘들어서 정보량이 쌓이는 느낌이면 세부 일치 문제는 풀어놓고 돌아가는 편입니다. 3문단을 보면 화이트 큐브는 현실로부터 작품이 분리된 느낌을 주는 요소였죠. 단순 일치로 푸는 것이 아니라 [1 <-> 2,3문단]을 비교해가면서 읽어주셨다면 빠르게 소거할 수 있는 선지였어요. 흐름을 보는 거죠. 2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대부터 조각의 독립적인 작품이 되는 경향이 생겼고 3문단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했죠. 이러한 경향 속에서 등장한 것이 [화이트 큐브 ->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 안에 받침대 위에 놓여 실제적인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줌 -> 작품의 독립적 경향 강조]이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 ①

->5문단에서 확인 가능했어요. [미니멀리즘 등장 -> 이후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옴 -> 그러한 시도 중 하나가 대지 미술 -> 대지 미술은 대지의 표면에 형상을 디자인하고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하였음 ->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작품의 미의 근원으로 삼는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작품과 장소, 감상자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드러남]과 같은 흐름이었죠. 단순 일치보다는 해당 선지가 왜 구성되었으며 어떤 흐름으로 소거하는지를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적절해요.

#### ③

->근대 이전의 [장소의 일부]로 존재했던 조각이 근대부터 왜 [독립적인 작품]으로 변해갔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어렵지 않은 선지였어요. 2문단에서 확인 가능하죠. [근대에 들어서면서 ① 종교의 영향력 및 왕권이 약화 -> 관련 장소가 지녔던 권위도 퇴색하여 -> 그 장소에 놓인 조각에 부여되었던 종교적, 정치적 의미도 약해짐 + ② 또한 특정 장소의 상징으로서의 조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기존의 맥락을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 -> 이러한 상황이 ③ 전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근대적 장소가 출현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 = 조각이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것 -> 사람들은 조각을 순수한 미적 현상이 구현된 독립적인 작품으로 감상하게 됨 ]

#### ④

->적절하죠. 2문단에서 언급된 근대의 조각의 경향, 즉 독립적인 작품으로써의 경향이 19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고 했죠. 그러한 경향이 바로 [작품 외적 맥락에 구속되기 보다는 -> 작품 자체에서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짐 -> 그래서 작품 바깥의 지시하거나 재현하기보다는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들이 이 시기부터 많이 등장]이었죠. 적절해요.

#### ⑤

->4문단에서 확인 가능했죠. 조각의 독립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미니멀리즘이었는데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기존의 추상 작품들과의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죠.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했기 때문에 -> 그 결과물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사물로 인식되기도 하였음]이었죠. 적절해요.

### 18번 : ⑤

->늘 말하지만 <보기> 문제에서는 <보기>를 읽고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보기>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그냥 어려워"가 아니라, 그러한 <보기>가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단순 일치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른 예시의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보기>의 입장과 비교할 수 있는지 등이 주로 나오죠. 결국 해당 문제의 <보기>는 지문에서 제시해준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일 뿐이었죠.

[중세 시대 = 근대 이전]

->건축, 조각, 회화 -> 독립적 예술 분야X = 기술이나 수공업의 영역으로 인식 -> 정치, 사회적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작품 외적 맥락에 구속)

[근대에 이르러]

->미술의 개념이 확립되고 미가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독립적 원리로 여겨짐 -> 사람들은 종교적 신비감이 시들해진 상태에서 순수한 미적 체험을 추구하기 시작 ->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의 건립은 이러한 변화와 맞물리 근대적 현상.

##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따라서 적절한 것은 ㉔이 되겠죠. [가]에 따르면 장소의 일부였던 조각이 독립적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장소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중세의 종교 건축물의 일부였던 조각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원래의 **종교적 신비감(=작품 외적 맥락에 구속된 것)**이 유지되기 어렵겠죠.

㉑

->박물관에서 원래 장소로 되돌아온 조각상이 건축, 조각, 회화 영역의 통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요. 해당 부분은 [조각이 장소와 같은 외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가는 경향]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지 예술의 각 영역에 대한 통합에 관한 내용은 없었죠.

㉒

->근대에 출현한 박물관은 기존 작품이 가졌던 수공업으로서의 가치를 약화하고, 작품의 독립적인 원리를 강화한다고 봐야겠죠.

㉓

->조각상을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은 기존의 장소와 같은 외적 맥락에 구속되는 것을 벗어나 작품을 작품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감상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정치, 사회적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조각상을 작품이 아닌 장소의 일부 또는 기술이나 수공업의 영역으로 인식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㉔

->[예술 -> 기술 분야로 확대]가 적절하지 않죠. 기존의 [기술, 수공업의 영역으로 인식 -> 작품 그 자체로서 인식, 하나의 독립적인 원리로 여겨짐]으로 인과관계가 바뀌는 게 적절하죠.

**Point** 해당 문제는 [가]만 읽고 풀 수 있었어요. 저는 문제를 먼저 훑어보고 문제 풀이의 순서 전략을 정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해당 지문에서 20번을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풀어주고, 지문을 읽으면서 [가]를 읽고 18번을 풀고, 17번은 문단 별로 읽어가면서 큰 흐름이 바뀔 때마다 돌아와서 처리해주고, 다 읽고 나서 16, 19번을 풀어야겠다는 순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문을 읽고 닳을 때 남은 문제가 16,19번 밖에 없고 16번 역시 사실상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나서 1문제에만 집중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나 지문 중 무엇을 먼저 볼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풀이를 위해 문단 별로 끊어가면서 읽는 편이고 이러한 풀이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풀면서 연습하면서 익숙해져야 되겠죠. 18번 문제와 같은 경우 사실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해당 부분 발문만 읽고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문단까지 읽어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그걸 구분하나 하면 글을 읽어가면서 해당 부분에서 어떤 하나의 흐름이 끝났다면 해당 문제는 그 부분만 읽고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단이나, 밑줄이 들어간 발문에 충분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다음 문단과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문단 외에 관련된 문단까지 읽어주셔야 풀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을 보고 빠르게 행동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 역시 요즘과 같은 텍스트량이 많은 시험에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바로 써먹기 보다는 미리 미리 연습해보시고 시험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 ㉔

㉑ : <L자 빔> -> 미니멀리즘

-><보기> [미술관 안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 -> **조형물들 사이를 걸으며 감상해보니 보는 위치에 따라 조형물들의 형태와 구도가 다르게 보임**]  
->4문단 [지문에서 언급한 미니멀리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미니멀리즘은 감상자들이 **걸어 다니는 바닥**이나 전시실 벽면과 같은 곳에 받침대 없이 놓임으로써 **감상자와 작품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동선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다고 했음(=㉔)]

㉒ : <나선형 방파제> -> 대지 미술

-><보기> [그레이트 솔트 호수에 설치된 작품 -> ~]

-> 5문단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가 이어짐 ->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자연을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아 장소와의 관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고자 하였음(=㉓)-> 이러한 시도 중 하나 **대지 미술**]

->[감상자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이 적절하지 않죠. 애초에 4문단에 따르면 ㉑과 ㉒과 같은 미니멀리즘의 작가들은 **[무의도성]**을 추구했죠. 또한 ㉒과 같은 대지 미술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의 **의미가 형성(=㉔)**이라고 했어요. 즉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을 통해 그러한 작품의 의미가 형성된다고 봐야하므로 적절하지 않죠.

㉓

->[기존 미니멀리즘 작품(=㉑) **장소와의 관련성을 모색하고 구현하는 것이기는 해도 미술관이라는 공간 내부에 제한된다는 점을 간파한 일부 예술가들이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자연을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은 것** -> ㉒ = 대지 미술]이므로 적절해요.

20번 : ㉓

->[출현하다 = 나타나다]이므로 적절해요. [드러나다 = 걸로 나타나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이므로 바꿔 쓰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완전하게 유사한 기술이 평가원 기술에 있었죠. [출현하다 = 나타나다] <-> [드러나다]를 묻는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유사합니다.

#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24~28번]

24번 : ②

->정말로 좋은 선지였어요. 단순 일대일 대응으로는 찾기 힘든 선지였죠. 글의 거시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어야 해요. 핵심은 [1~3문단 : 신경망의 다층 구조] -> [수학적 모델링] -> [4~9문단 : 합성곱 신경망 -> 전체 연결층]이라는 것을 파악했어야 한다는 거죠. 해당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죠. 전체 연결층은 다층 신경망 구조를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합성곱 신경망과 연결되어 있는 층이었죠. 시각 피질의 복잡 세포, 단순 세포와는 관련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선지는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했는지 문기에 가장 좋은 선지였죠.

①

->통한 연산은 합성곱 연산을 통해 출력된 합성곱층의 일정 영역 내의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했죠. 지문에서는 [최댓값 규칙]에 따라 그 영역 내의 값 중 최댓값으로 특징 지도를 출력했죠. 적절해요.

③

->단순 세포는 수용장 내에 비춰진 특정 각도의 선분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고 했죠. 이는 복잡 세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④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연산을 통해 출력된 특징 지도에 담긴 [이미지 데이터의 특정 패턴]을 통해 이미지를 인식한다고 했으니깐요. 적절해요.

⑤

->적절하죠.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정 패턴이 강조되고, 통합 연산을 통해 불필요한 위치 정보는 줄어든 특징 지도가 출력된다고 했어요.

25번 : ⑤

->사실 25번 같은 문제는 1~3문단만을 읽고도 처리할 수 있었죠. 문제를 훑으면서 해당 문제가 ㉠의 실험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파악한 후 4문단을 읽는 순간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25번을 처리하고 4문단을 읽으러가는 게 효율적이었죠. <보기>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였고 참 좋은 문제였어요.

1) 자극 1과 자극 2의 실험을 비교

-> [세포 A는 빛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복잡 세포**] <-> [세포 B는 빛의 위치에 영향을 받음 = **단순 세포**]

2) 자극 1,2와 자극 3,4의 실험을 비교

-> 세포 A와 B는 모두 각도 B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않음.

->자극 3과 4의 실험 결과를 보면 두 실험 모두에서 (**단순 세포 = A**)와 (**복잡세포 = B**)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1>을 보면 (b)에서는 (계층2 - 단순 세포), (계층3 = 복잡 세포) 모두가 각각 검정색 유닛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존재하죠. 따라서 자극 3,4의 실험 결과가 (b)에 해당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①

->적절하네요. 세포 A와 B 모두 해당 빛의 각도 A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있으니깐요.

②,④

->좋은 선지죠. 자극 1과 2의 실험의 비교를 통해 여러분이 A가 복잡 세포, B가 단순 세포인지를 파악했는지를 묻고 있으며, 이 역시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두 세포의 차이점을 통해서 묻고 있죠. 복잡 세포인 A의 수용장의 범위가 더 넓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림 1>에서 계층2는 단순 세포, 계층 3은 복잡 세포를 나타낸다고 했으므로 ④ 역시 적절합니다.

③

->적절해요. 빛의 위치는 동일한데 각도가 변함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있죠.

26번 : ④

->필터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죠. **필터의 크기와 이동 간격의 비율은 자동적으로 변환되는 값이 아니라, 초기 설정 값이 계속 유지된다고**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했어요. 이러한 패턴은 자주 나왔죠. 해당 지문과 관련이 있는 2017학년도 인공 신경망 지문에서 [임계치 고정 -> 변화]로 오답 선지를 구성했고, 같은 년도, 같은 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출제한 2018학년도 고3 3월 전국연합 [사진의 사실성에 관한 여러 미학 이론]지문에서도 [카메라의 초점 거리는 고정 -> 변화]의 패턴으로 오답을 구성했어요. 실제로 읽으면서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기출을 잘 분석했고, 오답 구성 원리에 익숙해지고 계신 거라 보면 되겠죠.)

①

->적절하겠죠. 합성곱 연산 과정에서 필터의 값과 이미지 데이터의 값이 곱해져 특징 지도의 하나의 유닛 값이 도출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6문단에서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특징 지도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②

->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 가능하죠. 어렵지 않은 선지였어요. 애초에 합성곱 연산 자체가 필터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의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출력하는 거니까요.

③

->그러한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의 특정 패턴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이미지 데이터 속의 사물의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했죠. 적절해요.

⑤

->이미지 데이터의 값과 필터의 값을 곱해서 특징 지도가 출력되고 그러한 특징 지도에는 해당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의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이 반영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합성곱 연산을 통해 합성곱층이 구성된다고 했구요. 따라서 필터의 매개를 통해서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에 대한 정보가 합성곱층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27번 : ④

->해당 문제를 소거법으로 풀었으면 글을 못 읽는 거겠죠. 단번에 정답 선지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통한 연산의 목적을 묻고 있으니까요. 통한 연산은 합성곱 연산의 반복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위치 정보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죠. 따라서 ④이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28번 : ⑤

->지문에서 설명한 [합성곱 연산 -> 통합 연산]의 과정을 <보기>의 사례를 통해 묻고 있는 문제였죠. 어렵지 않았어요. ㉞에서 ㉟로의 과정은 [통합 연산]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합 연산은 합성곱 연산의 결과로 만들어진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의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었죠. 불필요한 위치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요. 따라서 [♡의 특징을 검출할 수 있는 필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러한 필터는 [㉠ -> ㉢]로의 합성곱 연산 과정에서 적용되어야겠죠. 역시나 단순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각의 연산의 역할과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또한 합성곱 연산에서 [필터]가 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선지였어요. 이제는 글을 가볍게 읽어읽고 일대일 대응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①

->84개의 유닛에서 16개의 유닛으로 줄어든 특징 지도가 출력되었으니 당연히 ㉞의 데이터의 크기는 ㉠의 데이터의 크기보다 작겠죠.

②

->가로 8칸, 세로 8칸의 이미지 데이터가 가로, 세로 4칸의 특징지도로 출력되기 위해서는 가로4, 세로4의 연산이 수행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 필터는 5X5여야 하죠. 저는 그랬어요. 머리가 나빠서 힘.

③

->적절하겠죠.  $[4/16] = [25\%]$ 니까요.

④

->지문에서 설명한 [최댓값 통합 규칙]을 파악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만약 아까 지문을 읽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선지를 읽는 순간 규칙이 무엇인지를 느껴야 하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주었어야겠죠. 적절해요. 그렇다면 평균값 통합 규칙은? 그렇죠. 해당 범위의 값들의 평균값을 특징 지도의 출력값으로 내보내는 규칙이겠죠.)

#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33~37번]

33번 : ①

->이 글은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를 핵심으로 전개되는 글이었죠. [리카도 <-> 클라크] -> [마셜]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어요. 리카도의 주장을 비판한 클라크의 주장 그리고 그러한 두 주장을 수용하고 재해석한 마셜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①이 되겠네요. 지대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 리카도와 클라크의 두 이론을 소개하고, 그러한 두 이론을 수용한 마셜의 후속 이론을 소개했죠. 그리고 그러한 마셜의 이론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글이었어요.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②

->차액지대론에서 지대의 결정 원리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었죠. 다만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죠. 가상의 상황 예시를 통해 제시했을 뿐입니다.

③

->지대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밝히고 있다고는 볼 수 있죠. [생산 요소 / 한계 비용]등과 같은 개념 등과의 관계를 밝혔으니까요. 다만 [지대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④

->지대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지대론의 변천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았죠.

⑤

->신고전경제학파는 지대를 [정당한 대가]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론이 아니었어요.

\*Point 전체적으로 앞 발문은 적절하되 뒤 발문에서 명확한 오답의 근거를 주었어요.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은 선지들이었습니다. 다만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잘 읽어주셨다면 답은 명확하게 눈에 보였겠네요.)

34번 : ①

->좋은 문제였어요. <보기>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겠네요.

- 1) 갑국은 곡물 수급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 ->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곡물 수입이 완전히 끊김으로써 공급 부족
- 2) 한계지 경작 -> 그 결과 곡물 가격과 기존 경작지의 지대가 오름
- 3) 이후 주변국과의 분쟁이 해결 -> 곡물 수입 재개
- 4) [을]은 곡물 수입 반대 주장 ->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높으므로 -> 가격 경쟁력이 없는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
- 5) 리카도는 차액지대론에 입각하여 ->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왜냐하면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곡물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A] 그 손해는 지주들에게만 귀속될 것이기 때문

->이에 따르면 [A]의 근거, 즉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곡물의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떨어져서 손해가 지주들에게만 귀속되고, 농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리카도의 주장의 근거를 찾아주는 거죠. 리카도는 [을]의 주장인 [지대 -> 생산물의 가격]이 아니라, 반대로 [생산물의 가격 -> 지대]라고 했죠. 즉 리카도는 그동안의 갑국의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높아진 것이지,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을 거고 따라서 수입이 재개되면서 곡물의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낮아진다면 그에 따라 지대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한 지대의 감소로 인한 피해는 지주들에게만 귀속된다고 주장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①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35번 : ⑤

->차액지대론에 따른 지대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죠.

- 1) 쌀의 가격 =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지
- 2)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의 지대 =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 - [한계지에서이 쌀 생산비]

-> 따라서 각 토지에서 쌀 생산비는 [A : 5만원 / B : 6만원 / C : 8만원] 일 것이고, 한계지 C가 되겠죠. 이에 따라 계산을 해주면 A에서의 지대는 [8 - 5 = 3만원], B에서의 지대는 [8 - 6 = 2만원]이 되겠네요. 제시된 개념 간의 관계만 파악해줬으면 어렵지 않았어요.)

36번 : ③

->해당 문제는 당연히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죠. [㉓ = 리카도], [㉔ = 클라크], [㉕ = 마셜]의 논의를 비교해주는 문제였어요. 클라크와 마셜은 모두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었죠. 클라크는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지대를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의했다고 했어요. 또한 마셜은 이러한 클라크의 이론을 수용하여 토지를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보았다고 했죠. 따라서 ㉔와 ㉕ 모두 토지를 생산 요소 보았다고 볼 수 있어요.

①

->㉔인 리카도는 [지대 = 잉여 = 불로소득]으로 보았고, 이러한 ㉔의 지대론에 입각한 헨리 조지는 그러한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지대 조세론을 주장했죠. 적절하네요.

②

->㉕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 -> 지대에 영향]이라고 했고, ㉖는 [지대 =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㉔와 ㉖ 모두 지대를 토지 생산물과 관련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적절합니다.)

④

->㉗인 마셜은 ㉖의 한계생산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고 했어요. 적절해요.

⑤

->㉗인 마셜은 지대를 순전히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토지의 비옥도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고 비판했죠. 적절하네요.

37번 : ③

->마셜은 [공장, 기계 등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가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준지대'라고 하였다. 이런 요소도 토지처럼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가)에서 즉시 조절할 수 없었던 고액을 투자한 공장 부지는 단기적으로 고정 생산 요소로 보았겠죠. 빵 가격이 더 오른 후에야 거액을 투자 하여 공장 부지를 빌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㉓)라고 보았을 거고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또한 마셜은 (가)에서 공장 부지가 아니라 즉시 조절해준 밀가루 투입량이나 노동자 수를 가변 생산 요소로 보았겠죠.(=㉔)

④

->마셜은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가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준지대라고 한다고 했죠. 따라서 (나)의 비행기는 고가의 자본 설비에 해당하며, 그런 경우 그러한 비행기를 이용하는 대가인 비행기 임대료는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므로 준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⑤

->마셜은 생산자의 행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죠. 따라서 (나)에서 추가 투입한 비행기 임대료는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볼 수 있겠죠. 적절해요.



[작자미상 - 속향전]

작품해설 : 속향이 어려서 고아가 되고, 구출자를 만나 양육되었다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라네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남을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애정의 성취를 중요시 했던 당대의 경향을 드러낸다고 해요. <보기>의 제시된 정보를 통해 감상한다면 [속향전]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두 주인공은 의지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 가고, 결국은 징표에 근거하여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해요. 이와 같이 고전 소설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이원적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천상계 -> 지상계 -> 천상계로 복귀]와 같은 [적강구조]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구요.

### 29번 : ㉠[서술상의 특징 파악]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소설의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들이 개입하거나, 비현실적인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의미해요. 해당 지문에선 [이랑]과 [속향]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고할미]와 [화덕진군]이 개입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문 중 할미와 이랑의 대화인 ["낭군의 말씀이 매우 허단합니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거늘 속향을 데려 갔다는 말이 더욱 황당합니다"] + ["화덕진군이 말하기를 '속향이 수놓는데 불뚝을 나리쳐 봉의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징간하라.' 하였으니 그 노옹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를 통해 마고선녀와 화덕진군이 현실계의 인물이 아닌 비현실적인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따라서 이랑과 속향이 만나게 되는 사건, 즉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해요.)

㉡

->등장인물의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작품 속 인물의 독백적 발화(“)를 통해 해당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해당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발화와 작품 외부의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요약적 진술]

->요약적 진술은 있었죠. [요약 =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림]라는 뜻이지요. 즉 요약적 진술이란 진술을 함에 있어서 사건이나 서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길게 서술하지 않고, 요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만 한, 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랑의 발화 중 [제가 처음에 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표진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는데 낙양 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가 요약적 진술에 해당하겠죠. 이랑이 표진강가까지 갔다가 오는 것을 일일이 풀어서 서술한다면 상당히 긴 사건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서술하지 않고 이랑의 발화를 통해서 표진강가에 갔다왔다는 요점만 간추려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약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외에도 지문 마지막 부분에 [할미 오락하고 돌아가 남자더러 이생의 말을 이르고 진주를 내어 주거늘 남자가 보고 '맞습니다'하니 할미는 웃고 즉시 이랑에게 가 말했다] 역시 요약적 진술에 해당하겠죠. 할미가 이생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다시 남자에게 가 전달하고, 진주를 내어주고, 남자로부터 대답을 듣고, 다시 이랑에게 가서 그러한 대답을 전달한 사건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제시했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요약적 진술을 통해서 앞선 사건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사건의 전개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적절하지 않네요.

㉤

->언어유희 X /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냄 X.

\*Point 풍자&해학

-> 해학이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해학은 풍자와 함께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을 통해 비꼬아서 제시함으로써 우스꽝스럽게 나타나고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이 공통점을 가져요. 하지만 풍자는 해학에 비해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며 풍자의 대상은 공격함으로써 작가의 이상을 독자에게 전달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해학은 상대적으로 해학의 대상에 대한 동정을 통해서 독자에게 그런 상황을 공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 30번 : ㉣

->해당 문제에서 ㉠~㉣도 중요했지만 <보기>의 [할미가 속향에게 진주를 보여줌]을 잘 읽어주셨어야 실수를 안 했겠죠.

㉠

-> ㉠은 지문 [제가 처음에 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표진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는데 낙양 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까지 속일 수가 있습니까?] + [\*선사(=이전 어느 날에)에 할미 이랑을 속여 보내고 안으로 들어와 남자더러 말하기를] + [이랑 : 할미의 말을 곧이듣고 속향을 찾으러 갔노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해당 발췌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저러한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서 이랑과 할미가 전에 한 번 만남 적이 있고, 이랑은 할미에게 속아 속향을 찾으러 [표진강가에까지 갔]다 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

-> ㉡는 [이때 이랑이 목욕재계하고 황금 일정을 가지고 할미 집을 찾아가니]에 해당하는 만남이죠. 지문 중간부분에 제시되는 만남과 둘의 대화와 오고가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만남에 해당했어요.

㉔

-> ㉔는 ㉓의 만남 다음에 이어지는 만남으로 지문에서 [할미를 이별하고 집에 돌아와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삼일 후에 할미가 나귀를 타고 오거늘]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㉔에서 할미는 이랑에게 자신과 속향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었죠. 둘의 대화 중 할미의 발화를 보면 [낭군을 위하여 속향자를 찾으러 다니니, 속향이란 이름이 ~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하더이다]와 같이 자신과 속향의 관계를 숨기고 이랑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속향과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 마치 이랑에게는 속향이 누군지 모르는 듯이 말하고 있으니깐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네요.

㉕

->적절하죠. ㉓에서 할미는 일부러 자신과 속향과의 관계를 속여 이랑이 표진강가에까지 갔다 오도록 만듦으로써 둘의 만남을 지연시키고 있죠. 이랑을 시험하는 거죠. 할미 나빠요.

㉖

->지문의 첫 부분에서 이랑과 노옹이 대화하는 부분은 ㉓와 ㉕ 사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화에서 이랑은 자신이 ㉓와 같은 만남에서 할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㉖와 같은 두 번째 만남에서 이랑은 [할미의 말을 곧이듣고 속향을 찾으러 갔노라 + 사람을 속임이 너무 짓궂도다]와 같이 발화를 하는 거구요. 적절해요.

㉗

->㉖와 같은 두 번째 만남에서의 할미의 발화 [속녀를 취하여 동락할 것이지 구태여 그런 병든 걸인(=속향)을 괴로이 찾습니까]에서 확인 가능하죠. 할미가 이랑을 떠보고 있어요. 할미 나빠요.

㉘

->적절하죠. ㉓ -> ㉔로 가면서 조금씩 할미가 속향에 대한 정보를 이랑에게 줌으로써 만남에 대한 이랑의 기대감이 커지죠. 어장 속 물고기처럼. 할미 나빠요. 이랑 바보.

## 31번 : ㉔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상]이 명시적 오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문득 난데없는 불뚱]을 보고 놀란 것은 그냥 놀란 거죠. 저 같아도 그냥 놀랄 듯. 다만 이러한 불뚱이 하는 역할은 <보기>에서의 [징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러한 불뚱으로 인해 [봉의 날개 끝이 타]게 되고 이를 통해 이랑과 만남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㉕

->적절하네요. 이랑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보기>에서 제시해준 것처럼 순탄치 않네요. 할미 나빠요.

㉖,㉗

->할미가 이랑을 떠보면서 [그런 병든 걸인(=속향)말고 속녀랑 잘 살지 그래?]라고 하니 이랑이 [이미 전생의 일을 알고서야 -> 어찌 속향을 생각지 않겠느냐(=㉖) ->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㉗)]라고 대답하죠. 이를 통해 이랑이 전생에 속향과 인연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보기>의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그러한 인연을 지상계에서 이어가지 못하면 세상에 머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즉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의지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선지 모두 적절해요.

㉘

->그렇네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허허허. 민망.

## 32번 : ㉕

->이랑과 속향의 만남은 매우 험난했어요. 따라서 이랑이 이렇게 매우 힘든 과정을 통해 그렇게 바라던 속향을 만나게 되면 매우 기쁘겠죠. 그게 바로 감개무량이죠. [감개무량 :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 또는 그런 감동이나 느낌을 가리킴].

㉖

->[면중복배 :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 배반함]

㉗

->[의기소침 : 시무룩 =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음]

㉘

->[전전긍긍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㉙

->[절치부심 : ㅂㅅㅂㅅㅂㅅ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42~45번]

### (가) [장유 - 고목설]

작품해설 : 인간의 품성을 굽은 나무에 비유해 제시한 17세기 한문 수필이라고 하네요. 핵심은 [유추 :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지며, 또 한 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리하는 일]을 통해서 각 인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인물들의 발화가 [대화 형식]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 (나) [허전 - 고공가]

작품해설 : [고공가]는 임진왜란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가인 허전이 당시 신하들의 부패상을 우의적으로 비판한 가사입니다.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가사가 되겠죠. [고공 = 머슴]인데, [국가 = 집]와 같이 비유하고, [신하 = 집의 머슴]으로 비유함으로써 당시 신하들의 무능함과 부패를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임금 = 집의 주인]의 입장에서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고공답주인가]와 함께 세트르 알아두시면 매우 좋아요.)

### (다) [이원익 - 고공답주인가]

작품해설 : [고공답주인가]는 임진왜란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원익이 (나)와 같은 허전의 고공가에 화답한 가사입니다. 역시나 교훈을 전달하는 가사죠. [고공가]에서 [집 = 국가]의 쇠락한 원인을 일방적으로 [신하 = 머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면 [고공답주인가]에서는 [어른중 = 현명한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집의 주인 = 임금]의 책임 역시 지적하는 작품이죠. (나)와 (다) 모두 [집 = 국가], [신하 = 머슴], [임금 = 집의 주인]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 42번 : ④

->(가), (나), (다) 모두 실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들이죠. (가)에서는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로구나]와 같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나)와 (다)는 모두 고공 = 머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집안 =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비판하고 있었죠. 적절해요.

### ①

->(가)와 (다)에서는 회상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나)에서는 과거의 집안이 잘 살던 집안의 내력이 [A]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므로 회상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과거 지향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과거의 잘 살던 내력과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고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태도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죠.

### ②

->(가) ~ (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조적 흐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 ③

->(나)와 (다)는 [집안이 기운] 위태로운 가상의 상황을 통해 현실을 빗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가치관의 대립은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가)는 오히려 가상의 사례라기보다는 구체적 현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또한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장생]과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죠.

### ⑤

->(나)에서는 세월의 흐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과거의 집안이 잘 살던 상황과 현재의 망한 것. 하지만 (가)와 (다)에서는 세월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또한 (나) 역시 가세가 기운 것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연의 변화상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죠.

## 43번 : ③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직 -> 정직하지 않은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은 일종의 요행 -> 이러한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의 말 인용]하고 있었죠. 이를 통해 [나]는 인간의 천성이 올바른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 ①

->장생은 나무와 인간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죠. 이게 바로 유추입니다. 장생은 나무를 여러 번 보고도 그 나무가 구부러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사람의 실체를 짐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죠. 적절하네요.

### ②

->장생은 나무가 원래 곧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게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장했고, 인간도 이처럼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죠. 적절해요.

### ④,⑤

->모두 적절해요. 어렵지 않은 단순 내용 일치였어요. [나]는 곧은 나무가 큰 집을 이루는 제목으로 사용되지만 굽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렵다고 했죠. 그리고 이와 대조적인 사회적 현실을 제시했구요. 즉 앞서 말한 나무의 경우와 달리 현실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 쓰이기 어려운 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비판했어요.

## 2018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정답&해설

### 44번 : ④

->(다)의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은 [주인 = 마누라 = 임금]이 되겠죠. (나)의 청자는 [고공 = 머슴 = 신하]에 해당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 ①

->(가)에서 장생의 탄식을 들은 [나]가 [그가 이 일을 나에게 말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와 같이 장생의 탄식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었죠. 적절해요.

#### ②

->장생의 탄식을 들은 [나]의 발화 중 가장 처음은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네그러! 비록 그러하나 나 역시 할 말이 있네 ~]와 같이 대답했죠. 따라서 [나]는 장생의 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더해 자신의 의견을 [개선하다 :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고 있는 거죠. 적절해요. 개진은 빈출 어휘이니 알아두도록 합시다.

#### ③[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 [대화]

->적절해요.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 대화(의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선지죠. 일부 강사님들이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화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기출에 따르면 둘은 엄격하게 다른 겁니다. 대화체와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말투, 즉 어체일 뿐이고, 대화는 실제 발화가 이루어지는 형식을 의미하는 거죠. [구체적인 청자 설정 or 상대 높임법의 사용]이 있다면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즉 화자가 2명 이상 등장에 발화를 주고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대화체 or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독백]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에서도 [저 고공아 / 너희네]등과 같이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었으므로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화자와 청자인 고공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봐야한다는 거죠. 대화는 대화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나요.

#### ⑤

->(나)에서 [저 고공아 우리 집 내력을 나느나 모르느나] +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아주 없어]등을 통해서 [집 주인 -> 고공, 머슴]에게 발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다)에서는 [철없는 중의 일은 물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헤아리니 마노라 탓이로다 ->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 중의 죄가 많건마는 그렇지만 세상 보기에 민망하여 여쭙니다를 통해서 (나)를 들은 [머슴, 고공]이 [마노라 = 주인 = 상전]에게 답하고 있음이 드러나죠. 적절해요.

### 45번 : ②[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B]는 [마음을 다루는 듯 + 호수를 시기하는 듯] -> [흠칫흠칫하느냐]과 같이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서로 사이가 좋은 얇은 머슴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머슴들로 인한 피해는 적절하지 않아요.

#### ①[시간의 흐름]

->[할아버지 -> 집 잘 삼 -> 이를 자손에게 물려줘 대대로 내려옴]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집]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과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네요.

#### ③[유사한 통사 구조 반복]

->[a해서 b한 c(를) 누가 고칠 것인가]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맛탱이가 간 집안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네요. 적절해요.

#### ④[설의법]

->[D]는 [크게 기운 집에 마노라(=주인=임금) 혼자 앉아 있으니 -> 분부를 누가 받들고 의논을 뉘와 할까(=설의법=답정너) = 할 사람이 없음 -> 낯시름 받시름 혼자 다 맞음 -> 옥 같은 날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설의법=답정너) = 몇 날 없음]이므로 설의적 표현을 통해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 ⑤[연쇄법]

->[A는 B], [B는 C], [C는 D]와 같이 앞 구절의 마지막은 다음 구절의 처음이 이어 받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잘 아는 것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 빨가면 사과 -> 사과는 맛있어]의 노래겠네요. [E]에서도 그러한 연쇄법이 드러나며 그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어른(=현명한) 중을 믿고 -> 상벌을 밝히고 -> 중들을 휘어잡고 -> 집일을 고쳐]라와 같은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적절해요.